



獨, 캔 재활용 의무수거 본격 시행
2백㎡ 이하 점포 자체 판매 캔 의무부여

독일 전역에서 빈 캔 의무 재활용 수거가 지난 달 1일부터 본격 도입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9개월 간 유예기간을 보내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캔 재활용 의무수거 규정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한 캔 또는 유사 포장재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딜러 혹은 점포는 반드시 이를 재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경고 조치가 나간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의무수거 대상인 캔 및 PET 병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환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수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매장 규모 2백㎡ 이하의 소규모 점포는 자체

판매한 캔에 대해서만 재수거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해 캔 제품 판매 시 재수거 의무대상 표시를 부착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빈 캔은 반드시 구입한 곳에 반환해야 한다.

지난 9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독일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의무수거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해왔다. 소비자들의 불평과 무엇보다 각 소매상 및 도매상들의 추가 비용이 문제가 돼, 이 규정이 본격 시행된 데에는 많은 굴곡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각 유통업체나 매장이 자체 비용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컸고 캔 자동수거기 등 관련 제품의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일이 빈 캔을 원래 구입한 곳



에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평이 매우 컸다.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의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문제나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소매 유통업, 음료 제조업 등 관련 업계 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태이다.

Metro, Rewe, Aldi 등 독일 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비용 절감, 소비자 불만요소 제거 등을 내걸고 재활용 의무수거 대상인 캔 제품 유통을 중단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 동 제조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日, 고니시(주) 다용도 접착제 개발

고속경화, 고투명 '본드 울트라 다용도 SU'

일본 고니시(주)는 세계 최초의 경화속도와 투명성을 겸비한 다용도형 접착제 '본드 울트라 다용도 SU'를 개발 완료, 지난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 제품은 이 회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SU 폴리머를 활용해 제품화한 것으로 피착체에 대한 다용도성을 폭 넓게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내 판매는, 폴리머 센터 및 DIY숍 등을 통해 판매를 전개, 3년후 40만개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상품은 경질재, 연질재를 불문하고 옥내외, 요철면 등의 상태에서도 뛰어난 접착성을 발휘한다.

다용도형 접착제로서는 탁월한 경화속도를

가지고 있고 단면에 칠을 한 후 붙인다.

공질 재료에서는 약 4분안에 접착이 가능하다. 더욱이 투명성이 뛰어나므로 투명소재에 대해서는 깨끗한 마무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포함하지 않은 무용제이므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성이 뛰어나다.

SU폴리머는 실리콘과 우레탄의 합성구조를 갖는 신개발 수지로, 고니시(주)에서는 SU폴리머 응용제품으로 가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틱형 수성접착제 및 업무용 무용제의 접착제를 우선 발매할 예정이다.

美, 아시아산 플라스틱 쇼핑백 덤핑 피소

빠르면 11월말 상무부 예비판정 예상

미국 플라스틱 쇼핑백(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쇼핑백) 제조업체인 Sonoco사와 4개 제조업체들은 중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들이 미국내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반덤핑 혐의로 국제교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 5개 미국 플라스틱 쇼핑백 제조업체들은 외국 제조업체들의 덤핑 판매로 인해 연간 3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외국 제조업체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플라스틱백 제조업체들은 아시아로 생산라인을 옮긴 미국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동으



로 대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덤핑 제소에 대해 미국의 플라스틱 백 공급업체인 Target사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아시아 제품에 비해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의 덤핑으로 인한 손실도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onoco사가 덤핑혐의로 제소한 Advance Polybag의 부회장은 미국제조업체들의 반덤핑 제소를 일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태국에 7백10만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플라스틱 쇼핑백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수요의 20%를 충당할 예정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제소 내용에 따르면 이 공장 건립은 다른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청원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中, 알루미늄 캔 포장 생산량 증가 맥주 캔 생산량 5% 이상

빠른 경제 발전에 따라 중국의 알루미늄 캔 포장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2년 중국의 맥주 생산량은 23억8천6백83만톤으로 이미 생산량이 2천2백만톤에 달하는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알루미늄 캔 포장 맥주 생산량이 5% 이상을 차지한 약 15억~20억켤에 달했다고 한다. 현재 음료시장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2010년 중국의 탄산음료 생산량은 약 8백만톤, 캔 포장 사용율을 20%로 추산하면 캔 포장 사용량이 약 1백24억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양철 캔 포장도 현재까지 몇가지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생산량이 매년 5%의 증가폭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日,코카콜라, 전국 SCM 가동 연 2백50억엔 경비 절감

일본 코카콜라 그룹이 전국 SCM(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을 위해 지난 4월에 설립한 코카콜라 내쇼날비버리지(주)(CCNBC)가 지난 달 1일 일본 코카콜라 그룹의 조달·제조·물류 업무를 개시한다고 일본식량신문이 보도했다.

“전세계 코카콜라사의 선구자격으로 전국 규모의 SCM을 일원화하는 신규 자회사의 탄생은 제2의 창업이며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쇼날비버리지 출범 의의를 밝혔다.

신규로 통합된 정보 시스템이 지원하는 전국 지점 관리에 의한 생산성 향상, 모든 제조 라인의 최대 활용과 재고 적정화 등에 의해 2007년까지 연간 2백50억 이상의 경비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코카콜라는 이것을 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의 강화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투자해, 코카콜라 그룹의 장기적 경쟁 우위 확립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